

# 최제우의 《동경대전》

## 평등주의 사상으로 신분 질서를 뒤흔들다

글\_ 표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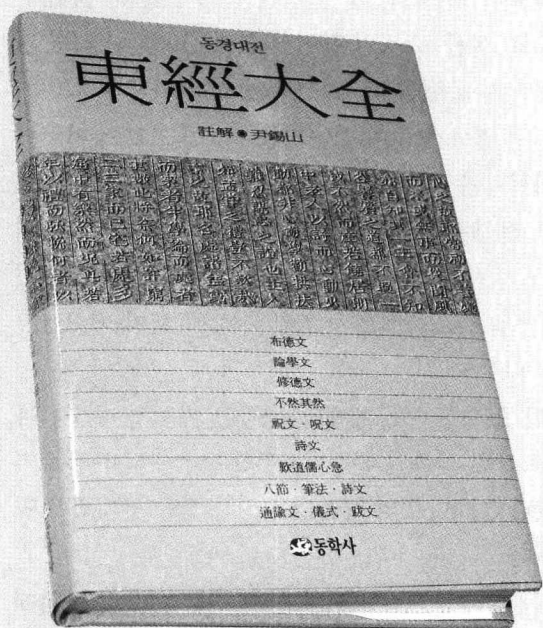
《동경대전》은 동학(東學)의 창시자 수운 최제우의 저서이지만, 그것을 엮어서 간행한 것은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 1827~1898)이었다. 최시형이 1880년 5월에 강원도 인제에 경전간행소를 세워 《동경대전》을 간행했고, 이듬해에는 단양의 경전간행소에서 역시 최제우의 저서인 《용담유사》(龍潭遺詞)를 간행했던 것이다. 《동경대전》은 동학의 핵심 교리를 한문체로 엮은 것으로 오늘날에도 천도교의 경전이 되고 있으며, 《용담유사》는 한글 가사체로

쓰여져 문학적인 가치도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동경대전》은 ‘포덕문’ (布德文), ‘논학문’ (論學文), ‘수덕문’ (修德文), ‘불연기연’ (不然其然), ‘참회문’ (懺悔文), ‘축문’ (祝文), ‘주문’ (呪文), ‘시문’ (詩文) 그밖에 운문체의 다양한 문장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논학문’은 문답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 특히 ‘논학문’에서 주문을 설명하는 부분에 동학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인 시천주(侍天主)에 대한 풀이가 나와 있다. 우리가 동학하면 떠올리게 되는 인내천(人乃天) 사상도 바로 시천주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풀이하자면, ‘사람이 한울님(天主)을 모셨으니(侍) 그 사람 역시 이에 한울님(人乃天)’이라는 논리인 셈이다.

이것은 결국 한울님이라는 우주적인 존재가 별도의 초월적인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내면에 모셔져 있다는 생각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한울님을 내면에 모시고 태어나게 되고, 결국 사람은 한울님의 맑고 깨끗한 성품을 그대로 지니게 된다. 역시 ‘논학문’에 나오는 ‘내 마음이 네 마음’이라는 표현도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한울님의 마음임을 뜻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사람이 맑고 깨끗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현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울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결국 한울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한울님의 맑고 깨끗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동학 또는 천도교 수행의 중요한 목적이다. 《동경대전》 ‘논학문’의 해당 부분을 보면, 최제우는 시천주를 풀이하러 이렇게 말한다. ‘모신다(侍)는 것은 안으로 신령(神靈)이 있고 밖으로는 기화(氣化)가 있어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을 풀이하면, ‘안으로는 신령스런 한울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밖으로는 유형의 생명체로 탄생하는 그 순간을 회



《동경대전》  
최제우 지음 | 윤석산 옮기고 엮음 | 동학사 | 328쪽 | 값 20,000원

### ● 이 글을 쓴 표정훈은

책을 읽고 쓰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출판평론가, 번역가, 작가 등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직함을 '번역·저술가'로 통폐합하는 중이며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매문기'로 규정한다. 저서로 《하룻밤에 읽는 삼국지》《하룻밤에 읽는 동양사상》《책은 나뉘는 운명을 지닌다》《탐서주의자의 책》《나의 천 년》이 있고, 역서로 《중국의 '자유' 전통》《고대문명의 환경사》《진영침의 주자강의》《자연,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불사의 추구》 등이 있다.

복하여 다른 마음으로 옮기지 않는 것' 이 바로 '시천주'라는 뜻이다.

《동경대전》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시천주 사상은 당연히 평등주의를 포함한다.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각자의 내면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면,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의 차이는 무의미하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최제우는 《용담유사》의 '교훈가'에서 동귀일체(同歸一體)를 말한다. '나'라는 개인이 이기주의적 성향에서 벗어나 '너와 나'가 모두 한울님을 모신 존재로서 한울님의 회복을 통해 '우리'라는 일체의 삶으로 함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조선의 철저한 신분 질서에 반하는 혁신적, 근대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수덕문'은 최제우 자신이 동학을 창시하고 가르침을 펴게 된 과정과 취지, 동학 교도들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포덕문'은 최제우 자신이 오랜 수도 끝에 1860년 4월 양산의 천수산 암굴 속에서 한울님(상제(上帝)로 표현되어 있다)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일종의 신비 체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자신이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뜻을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흔히 동학이라는 명칭이 당시의 서학(西學),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취지를 지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논학문'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내가 또한 동에서 나서 동에서 받았으니, 비록 도는 하늘의 도로서 같을지라도 동학이니, 땅 또한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를 어찌 동이라 이르고 동을 어찌 서라 이르겠는가. 우리 도는 이 땅에서 받아 이 땅에서 쫓으니 어찌 가히 서라 이름하겠는가.'

'서양 사람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순서가 없으며 도무지 한울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고 다만 제 몸만을 위하여 빌 따름이라. 그 도는 허무한데 가깝고 학은 한울님 위하는 것이 아니니, 어찌 우리의 학과 다름이 없다고 하겠는가.'

최제우가 살았던 조선 말기는 안으로는 부패와 무능으로 백성들이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고, 밖으로는 서구 열강들이 침략의 기회를 노리며 위협하고 있었다. 이러한 총체적 사회 불안은 인간성 상실의 위기로 이어졌다. 유교가 규정해 온 전통적인 신분 질서에 바탕을 둔 인간관이 지탱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다.

최제우가 《동경대전》에서 제시하는 시천주 사상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 요지

는 인간이 본연의 깨끗하고 맑은 하늘의 성품을 회복하고 이기심에서 벗어나 서로를 한울님으로 모시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경대전》을 단지 동학 또는 천도교의 경전으로만 대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혼란과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한 종교적 선각자가 시대를 향해 외치는 간곡한 목소리이기도 하다.

그런 간곡한 목소리를 지배층이 달가워했을 리 없다. 조선의 지배층에게 동학 사상과 《동경대전》은 전통적인 신분 질서를 뒤흔들고 민중 중심의 사회 변혁을 꾀하는 불온하기 짝이 없는 텍스트였던 것이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불온한 무리들이 읽는 불온한 텍스트였던 셈. 이미 1860년대부터 동학 관련 문헌을 소지한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포교를 시작한 지 불과 3, 4년 만에 교세가 크게 확장되자 조정은 동학을 서학과 마찬가지로 민심을 현혹시키는 또 하나의 사교(邪教)로 규정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결국 1863년에 최제우를 비롯한 20여 명의 동학교도들이 흑세무민(惑世誣民)의 죄로 체포됐고, 이듬해 최제우는 사형을 받고 순교했다. 동학교도들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비밀스럽게 간직하면서 몰래 읽어야 했으니, 동학교도의 집을 수색하여 이들 서적이거나 동학의 부적 등이 발견되면 어김없이 불태웠고 그것을 숨긴 사람은 역적의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도 동학 관련 서적에 대한 탄압은 계속됐다. 이미 1894년 10월 일본군이 조선의 관군과 연합하여 동학 농민군을 패퇴시켜 동학농민운동을 좌절시킨 적이 있으니, 일본으로서는 반(反)외세 성격을 강하게 지닌 동학을 탄압하는 게 당연했다. 일제 당국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고 치안을 불안케 한다'는 구실을 붙여 민족주의적 내용을 담은 서적에 대해 치안유지법 또는 출판법 위반 명목으로 발매금지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운동 관련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으면 금서가 됐다. 일제는 왜군의 잔학한 만행이나 패배가 서술돼 있는 임진왜란 및 이순신 장군 관련 도서들도 금지시켰으니, 하물며 동학 관련 서적이라. 동학 관련 서적이 조선과 일제에게 모두 금서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은 가히 동학의 비극이자 우리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 없었다. [4]